

2021년 1월 17일[제 41권 3호]

TWOWINGS 1500 VISION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예일교회

Healthy church soaring with two wings

담임목사 **강 승 신**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56
전 화 | 032-345-8031~2
팩 스 | 032-345-8033
홈페이지 | www.ylch.org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일교회



큰날개 주일예배
(해피투게더)

전통예배

축제예배

오전 11:00

젊은예배

오후 1:30

찬양과
경배

예배로의 부름
찬양 소원

노피어 찬양단
찬양 모든 이름 위에

고백과
헌신

기도 김영숙 권사
성도의 교제

기도 최용환 집사
광고 및 환영

말씀과
결단

에스겔 36장 24~28절 (구약 1208)

회복의 레시피

설교 담임목사

축복과
파송

봉헌 내 모습 이대로
축도 담임목사

봉헌 새 힘 얻으라
축도 담임목사

제직 및 임직훈련 15:00

벤전 4:10

선한 청지기

설교 담임목사

1월 예배위원

[다음주 기도]

축제예배 이미선 집사

젊은예배 이창수 형제

[봉헌]

전통예배 장미경 한미라

축제예배 서동협 정오영

김미정 김순매 최현순

젊은예배 옥임석 한상익

수요기도회 19:30

가정 예배

2월 봉헌위원

[전통예배]

김영미 김현숙

[축제예배]

라종선 김영일

김영숙 강애진 이선희



오늘의 말씀

회복의 레시피

[에스겔 36장 24~28절]

첫째, 좋은 음식을 위해 좋은 재료가 필요하듯이 회복을 위해서는 ()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좋은 재료만으로 음식이 안되듯이 새마음을 받았다면 이제 ()를 따라야 합니다.



작은날개 목장나눔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사사기 6:11~24]

W

WELCOME

환영

..... ICE BREAK를 해봅시다.

W

WORSHIP

경배

.....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을 성령님께 의뢰하며 기도합니다.

W

WORD

말씀

..... 나는 어떤 성격인가요? 가까운 쪽에 표시해 보고 나눕시다.

의심이 많다 ----- 잘 속는다

Q

QUESTIONS

질 문

1. 여호와와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11절) 여호와와 사자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12절) 기드온은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13절)
2.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 무엇이라고 합니까?(16절) 기드온은 무엇이라고 따집니까?(17절) 기드온이 경험한 일은 무엇입니까?(21절)
3.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꺼렸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
 -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
 - 자기 민족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
 - 너무 두려웠다
 - 자기와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 기타 :
4.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확신을 갖기 위해 한 주간 해야 할 일을 정해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W

WITNESS

증 거

이번주 행복모임의 진행현황과 베스트와의 관계맺기에 대해서로 나누어 봅시다.

W

WORK & PRAYER

기 도

돌봄이 필요한 목장가족이 있는지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1) 문제를 맡기며 기도
- 2) 베스트와 행복모임을 위해 기도
- 3) 치유와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
- 4) 축복기도



간증나눔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나의 삶 (2)

- 여성-2목장 김미정 집사 -

그렇게 2015년 9월에 첫 교회 방문과 동시에 등록하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마음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한 두 번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는 저의 작심은 무너지고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았고 말씀 중 알게 된 엄청난 사실들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 사람을 만드신 분,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궁금증이 풀리듯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점집, 사주팔자운명, 부적들, 이사 가기 전 좋은 날짜 택하고, 출산 할 때 좋은 날짜 택하고, 이사 들어가기 전 요강부터 들이고, 상가 집 다녀온 남편에게 소금 뿌리는 이런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살아온 저를 깨닫게 하셨고 옛 가치관과 우상들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고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마음과 기쁨이 넘치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기 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공허함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나오기 전 힘들어 하던 모든 일들도 하나님 은혜로 잘 해결 되어 현재 그 집에서 잘 살게 되었고 남편의 사업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이끌어 갈수 없었고 항상 기쁨 부어주심으로 채워주시는 감사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양육과 훈련으로 저의 세상 가치관이 하나님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 되면서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세상 것 만 쫓고 비교

하며 의식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변화된 삶 가운데 저희 집에 손님을 초대할 적 없었던 제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으로 집을 오픈 하게 되는 큰 변화가 생기면서 누구나 지나가다 생각하면 와서 차 한잔해도 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행복은 제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침묵과 큰소리만 났던 저희 가정에는 항상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미워했던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고 존경하게 되는 삶이 되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기쁨의 삶을 제일 먼저 친정 가족에게 전하고 함께 누리길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까지도 빠지지 않는 기도제목 중 하나 입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주시는 하나님 이시기에 친정 가족 한 명 빼고 아빠, 엄마, 언니 세분 동생까지 일곱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 먼저 천국에 가시게 되었고, 엄마는 교회나 하나님 얘기를 꺼내기만 해도 버럭 화를 내고 대적해 와서 기회만 생긴다면 전하리라 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강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을 정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수원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은 저를 통해 복음으로 동생을 위로하고 바로 설수 있도록 저를 통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우연찮

게 친절엄마가 시골에서 올라와 복음을 함께 듣게 되는데 복음을 듣는 진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기도예 아멘 을 하고 치유기도를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하셨습니다. 동생 또한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열어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친정가족은 저처럼 우상을 섬기며 점을 보고 굿을 하고 미신을 믿었던 가정이라 더욱 감격과 감동이 되어 기쁨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가족 모두가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며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가정에 첫째를 낳고 6년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하나 낳아 잘 기르자라는 마음으로 거의 포기하고 살고 있던 중 갑자기 한달 가량 둘째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남편은 입양을 생각하며 입양센터를 알아보고 있을 때쯤, 큰아들이 아침에 일어나 엄마가 꿈에서 아이를 낳는 꿈을 꿴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실제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벌써 둘째는 4살이 되어 유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사소한 먹는 것, 입는 것, 물질적인 것까지도 빠지지 않고 은혜로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자녀 삼아주시는 쉬운

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불행이 불행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저의 삶의 목적이 막연하게 잘사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저처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는 말씀처럼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나눌 줄 알며 주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로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듯이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과 영적 아버지 이신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이끌어주시고 비전을 향해 나아갈수 있게 붙잡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며 주의 사랑 받아 사랑할 줄 아는 자로 베풀수 있는 자로 또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와 무엇보다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칼럼

금년에는 반드시 성공하세요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성공」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싶어서 모든 역량을 모두 동원하며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드신 뒤에 유명한 다락방 훈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열 처녀의 이야기, 달란트 이야기, 양과 염소 이야기 등을 하셨습니다. 특히 달란트의 비유 속에 성공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금 두 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금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여 많이 남기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성공하였으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 두었다가 실패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자본이 많은 사람은 성공하고 소자본은 실패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 한 달란트는 결코 작은 자본이 아닙니다.

성공한 종들에게 주인의 칭찬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은 잘 들어나지 않는 일, 대수롭지 않은 일, 미미한 일을 말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성공은 따라 오는 것입니다. 다윗만큼 성공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몇 마리 양을 맡겼을 것입니다. 누가 보지도, 알아주지도 않았지만 열성을 다해 돌보다가 곰이나 사자가 물어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곰이나 사자를 때려 눕히고 아버지가 맡긴 양을 찾아왔습니다. 결국 곰이나 사자처럼 적장 골리앗도 때려 눕히고 승리하고 성공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큰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대통령이라고 해 보아라, 사장을 시켜 보아라, 내게 회장을 맡겨 보아라, 그러나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사장, 회장을 하기 전에 그 가정에서 가족을 잘 돌보았는지, 이웃과 돈 거래는 깨끗하였는지, 친구들에게 인정 받았는지, 아파트 경비원들이 존경하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작은 일, 미미한 일을 못하면 큰 일도 못합니다.

큰 일보다 작은 일을 잘 해야 성공합니다.

왕보다 종의 역할을 더 잘해야 성공합니다.

다.

성공한 종에게 주인은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마 25:21)라고 하였습니다.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을 잘 섬기고 충성해야 합니다. 주인 밑에서, 숨겨진 자리에서 생명 받쳐 충성하는 것이 종입니다. 요셉은 크게 출세하고 성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시작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였습니다. 얼마나 종노릇을 잘했는지 가정 총무로 삼고 다 맡겨버렸습니다. 종 노릇을 잘 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 떼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싸우기 전에 양치는 목동으로, 일꾼으로, 종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착각은 1등, 대장, 왕, 최고가 되어야 위대하고 훌륭하며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일 종ियो 노예요 일꾼이라 해도 그곳에서 마치 왕인 것처럼,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그 일에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 멋진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누리기보다 맘을 흘려야 성공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하고 원금과 이익금을 모두 성공한 종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성공한 종들은 누리고 즐기기 전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습니다. 자본을 선용하여 이익을 남겼습니다. 도둑질하거나 사기치지 않았습니 다. 정권과 결탁하여 약자를 괴롭히지 않았 습니다. 맘 흘리지 않고 성공하려는 사람을 불한당(不汗黨) <맘 흘리지 않고 남의 성공을 가로 채는 무리>. 사전에는 때를 지어 돌아다니는 강도, 화적, 때를 지어 다니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금주 도기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

1.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2. 교회 사역을 위해서

- 사역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레바퀴의 삶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기도로 무장하여 봄사역을 준비하게 하소서.
- 코로나가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시어 온 나라가 회복되고, 안정을 찾게 하소서.

3. 선교사를 위해서

-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소서. 러시아로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주어진 사역들 순조롭게 잘 감당케 하소서.

성도를 위한 기도

1. 이해경 권사

- 코로나로 인해 유아유치부 예배가 멈춘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예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사오니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옵소서. 또한 어린이들의 건강과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2. 옥임석 형제

- 요즘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오래 앉아 있거나 서있기가 힘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목과 허리의 통증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하여주옵소서.



금주의 감사

-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동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장 식구가 제자대학을 졸업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재생산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소서.

- 코로나로 혼란한 삶속에도 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 2021년 주님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로 채워 주시고 부족함 없이 인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하루 속히 종식되고 이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며 영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 목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내 어깨 위에 세우는 재생산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교회 소식

이번주 소식

1. 오늘 공동체 예배(3시)는 제직 및 임직훈련으로 진행됩니다. 제직 및 임직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 두날개 세이레 새벽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의 끈을 놓치 않으시기 바랍니다.
3.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두날개국제컨퍼런스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늦지 않게 참석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년 주보모음집을 발행되었습니다. 주보를 제출하셨던 분들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5. 2월 한가족 환영식 축가는 청년A-4, B-5목장입니다.
6. 양육과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2월 둘째주일(2/14)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 양육반, 제자학교 - 임영미 팀장 / 세계비전제자대학1, 2학기 - 나승미 팀장
양육반 - 주일 오후 4시 30분
제자학교 - 주일 오후 4시 30분
제자대학1학기 - 토요일 오후 5시
제자대학2학기 - 화요일 오후 8시
7. 리더캠프가 2월 27일(토)에 회복캠프가 3월 6일(토)에 진행됩니다.

[동정]
결혼 - 이상훈/김은희 성도
이번주 토요일(1/23) 오전 11시
신도림 웨딩시티 11층

다음주 봉사

[청소]

본당 : 여성C-4목장(이은숙 목자)
준2층,계단 : 여성D-1목장(양나운 목자)
2층 : 여성B-1목장(김영숙 목자)
3층 : 여성A-5목장(김화심 목자)
비전홀, 멀티룸, 화장실 : 청년공동체

새가족 섬김이

이예스더 자매 (섬김이 : 박진경 자매)
박숙이 성도 (섬김이 : 이미정 집사)
박혜숙 성도 (섬김이 : 김미정 집사)
송철영 성도 (섬김이 : 박원찬 집사)
김영옥 성도 (섬김이 : 김향화 성도)
김학병 성도 (섬김이 : 김영일 집사)
김우신 형제 (섬김이 : 이광수 간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세계비전을 품고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 날개는 전제가 모여 감동적인 축제로 드리는 대그룹의 축제예배이며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으로 모여 삶을 나누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목장모임입니다. 이 땅에 어둠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는 동안 그들을 찾아 쉬지 않고 섬기고 복음전하며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앞장서며 모든 것을 불태우는 교회입니다.

예배시간

전통예배	주일 오전 9:00
축제예배	주일 오전 11:00
젊은예배	주일 오후 1:30
공동체예배	주일 오후 3:00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3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9:30
유아부	주일 오전 11:00
유초등부	주일 오전 9:00
청소년부	주일 오전 9:00
작은날개모임	목장별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강승신	장로	이성근 이승길
전도사	장효진		
원로목사	강경원	원로장로	최기준

온라인에서 만나는 방법

스마트폰 QR코드 어플을 사용하세요.

홈페이지 www.ylch.org

모바일홈 m.ylch.org

페이스북 Yeil0691Church

KT올레TV CH 888, 예일교회 검색

온라인 봉헌 농협 351-0446-9239-73 (예일교회)



마을버스
51번, 51-2번(가톨릭대 입구 하차)

시내버스
5번, 12번, 20번, 52번 (가톨릭대 입구 하차)
75번(역곡역 남부 하차)

시외버스
83번, 88번(괴안동입구, 성심고가 하차)